# **Eugene's FICC Update**





Fixed Income 김지나 02)368-6149 i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 02)368-6138 i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 02)368-6177 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
		5/12일	1D	1W	YTD	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330%	-0.1	6.3	-26.6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685%	1.5	12.2	-17.0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5.5	33.9	29.6	25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66	0.0	-20.0	101.0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20.10	-19.0	-123.0	318.0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007%	11.5	17.3	-23.3		
	미국채 10년물	4.472%	9.1	12.7	-10.0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46.5	48.9	51.1	33.3		
	독일국채 10년물	2.648%	9.2	13.5	28.5		
	호주국채 10년물	4.311%	7.2	9.4	-5.7		
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미·중 무역 합의 영향.
- 전일 미국채 상승으로 약세 출발했지만 외국인 국채선 물 순매수에 보합권으로 회귀.
- 이후 장중 미-중 관세가 파격적인 수준에서 합의(90일 유예)됐다는 소식에 금리 전구간 상승하며 마감. 본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1만 계약 이상 순매수 하며 금리 상승을 일부 제한.

##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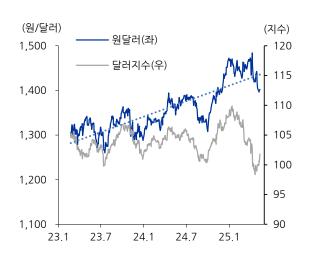
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 2년물 4% 상회
- 미-중 관세가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90일 유예되면 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. 증시 급등했으며 금리 역시 전구간 상승.
- 16곳의 IG 기업 회사채 발행 등 공급 부담도 발생. 인하 기대감 역시 크게 감소하며 금리 상승을 견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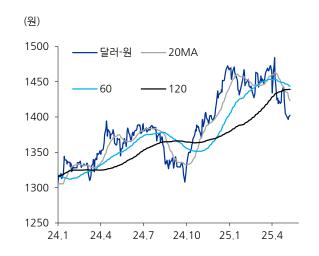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 (E4: %, \$							
		5/12일	1D	1W	YTD		
흰율	원/달러	1,402.40	0.2%	-1.3%	-4.8%		
	달러지수	101.80	1.4%	2.0%	-6.1%		
	달러/유로	1.109	-1.4%	-2.0%	7.1%		
	위안/달러(역외)	7.20	-0.6%	-0.0%	-1.9%		
	엔/달러	148.42	2.1%	3.3%	-5.5%		
	달러/파운드	1.318	-1.0%	-0.9%	5.3%		
	헤알/달러	5.68	0.4%	-0.2%	-8.2%		
상품	WTI 근월물(\$)	61.95	1.5%	8.4%	-13.6%		
	금 현물(\$)	3,326.64	-2.7%	-2.9%	23.3%		
	구리 3개월물(\$)	9,520.50	0.8%	1.7%	8.6%		

# 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#### 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2.40원 상승한 1,402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17.00원 마감.
- 이날 개장 전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는 미중 간 협상에서 실질적인 큰 진전이 있었으며, 곧 공동성 명을 발표할 것이라 밝힘.
- 미중 합의 기대로 달러는 강세가 이어졌고 장 초반 1,390원대에 머물렀던 달러 원도 상승 흐름을 지속.

# 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속에 급등.
- 90일 간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는 145%에서 30%로 낮아지며,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%에서 10%로 하향.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, 조만간 시진핑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. 다만 90일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관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발언.
- 무역 긴장 완화로 미국 증시 랠리와 함께 달러도 덩달 아 강세. 아직까지 4월 나타났던 'Sell USA'의 연장선.
- 연준 인사들은 대중 관세 유예에도 현재까지 발표된 수
  준 만으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.
  반면 독일과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다음달 금리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.